

719Th

영원한 오스트리아의 노래

지휘 요엘 레비 Yoel Levi
피아노 파질 세이 Fazil Say



PROGRAM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A장조, 작품 488>
W. A. Mozart <Piano Concerto No. 23 in A Major, K. 488>
브루크너 <교향곡 제7번 E장조, 작품 107>
A. Bruckner <Symphony No. 7 in E Major, WAB 107>

2017. 6. 28. WED. 7PM 충남도청 문예회관

2017. 6. 29. THU. 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영원한 오스트리아의 노래

아기자기하고 정묘한 서정과 애잔한 슬픔이 교차하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 23번>은 그의 음악세계가 지닌 정서적 위안의 섬세한 감동을 대변하는 작품이다. 맑고 아름다운 시냇물처럼 흐르는 그의 음악을 터키 출신의 피아니스트 파질 세이가 특유의 자유분방한 감성과 수채화 처럼 맑은 터치에 담아 연주한다.

리하르트 바그너를 마음 속 깊이 존경했던 브루크너는 바그너에 대한 추모의 심정으로 <교향곡 제7번>을 써내려가게 된다. 세속적인 성취에 대한 욕망보다는 독일·오스트리아의 고고한 전통을 계승하는 '음악의 수도사'가 되기를 갈망했던 브루크너는 20여분에 이르는 2악장 아다지오를 통해 가장 존경했던 음악가 바그너에게 보내는 예술적인 헌사를 참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다. 현의 트레몰로로 시작되는 신비감 넘치는 1악장은 천국의 온화한 세계를 보여주는 듯 하고, 바그너 튜바와 비올라로 연주되는 비감한 2악장 제1주제의 애절함에 이어 3악장의 다이내믹한 스케르초는 단단한 구조적 아름다움을 지향한다. 세상사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영겁의 신비처럼 울려 퍼지는 4악장에 이르면 그 심원한 감동은 차라리 '계시적'이라는 느낌마저 주게 된다.

PROGRAM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A장조, 작품 488>
W. A. Mozart <Piano Concerto No. 23 in A Major, K. 488>
브루크너 <교향곡 제7번 E장조, 작품 107>
A. Bruckner <Symphony No. 7 in E Major, WAB 107>

CAST



Yoel Levi

지휘자 요엘 레비 Yoel Levi

2014 ~ 제8대 KBS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2005 ~ 2012 내셔널 일 드 프랑스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2001 ~ 2009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 지휘자
2001 ~ 2007 브뤼셀 필하모닉 수석지휘자
1988 ~ 2000 애틀란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1978 ~ 1984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부지휘자 및 상주지휘자
1978 브장송 국제 젊은 지휘자 콩쿠르 우승



Fazil Say

피아노 파질 세이 Fazil Say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빈 콘체르트하우스 등 상주음악가 역임
<Black Hymns>,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등 작곡
독일 비평가협회 올해의 음반상 수상(2001)
뉴욕 영 콘서트 아티스트 인터내셔널 오디션 우승(1994)